

‘만주문학’을 통한 한중일 문학(자) 교류*

— 좌담회(1938)와 ‘대동아문학자대회’(1942)를 중심으로

崔貞玉**

<목 차>

1. 들어가기: 전쟁이라는 상황
2. ‘만주문학’ 담론의 탄생
 - 2.1 ‘만주문학’의 탄생
 - 2.2 일본 문학자들의 만주국 여행: <滿洲の文化と文學 座談會>
 - 2.3 좌담회의 정치성
3. 또 다른 좌담회
 - 3.1 1938년 조선에서 있었던 좌담회
 - 3.2 1941년 만주국에서 있었던 좌담회
4. ‘대동아문학자대회’의 개최
 - 4.1 대회에 참여한 만주국과 조선의 작가들
 - 4.2 ‘대동아문학’을 바라보는 《國民文學》의 시선
 - 4.3 귀국길에 오른 만주국과 조선의 대표자들
5. 나가기

1. 들어가기: 전쟁이라는 상황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했지만, 만주국 문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재만 중국인 문단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쟁이 문학과 작가들로 하여금 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인문사회 분야 : KRF-2008-354-A00317]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떤 방식으로든 동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37년에 발발한 중일 전쟁 때는 1941년 12월에 개시된 태평양전쟁 이후의 문학과 작가들의 동원보다는 정도가 약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재만 중국인을 동원해서 같은 민족인 한족과 전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만주국은 중국전선과 닿아 있었지만 북쪽 소련과도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만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북방 경계선상에서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는 일을 임무로 맡았다.

1941년 태평양전쟁은 재만 중국인을 동원하는데, 이전의 중일전쟁 때 내걸었던 것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 당시 적이었던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을 아군으로 포함해 '대동아'가 하나가 되어 서구, 특히 영국·미국과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이었다. 이 때 만주국은 대동아의 상징으로서 대동아공영권의 핵심이 되었다. 이렇게 만주국이 지역적으로 대동아의 한 일부로써 게다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선취하는 형태로 드러날 때, 문학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두 번의 전쟁이 발발하는 와중에 만주국에서는 '만주문학'과 '대동아문학' 담론이 제기되었고, 작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만주문학'은 1940년경에 갑자기 탄생되지 않았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재만 일본 작가와 문학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만주문학' 담론붐이 크게 일었다. 1930년대 후반, 만주국 문학계에 등장했던 '만주문학' 담론은 재만 일본인 작가들 위주로 논의되었으며, 여기에는 재만 중국인 작가의 의향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전쟁 상황은 만주국 내의 중국인과 일본인의 교류를 촉진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1930년대 말에서 1941년경까지 재만 일본인 작가와 재만 중국인 작가들을 오가면서 '만주문학' 담론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만주문학' 담론은 곧장 '대동아공영권'이 외쳐지고, 문학자들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대동아문학자대회'가 열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동아문학'으로 재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본고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인 1938년, 일본의 유력한 문학자들이 조선을 경유해서 만주국을 한 바퀴 여행하면서 벌인 좌담회에 주목한다.

좌담회는 “만주의 문화와 문학”에 관한 좌담회라고 제목을 달고 있으나, 실상 좌담회 이후 만주국의 중국인 문단과 일본인 문단에는 일련의 문화정책상의 변화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중일전쟁을 비롯해 이후 문학이 정치에, 시국에 어떻게 복무해야하는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고 하겠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1942년 11월에 열린 ‘대동아문학자대회’는 규모 면에서 보자면 좌담회의 크기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내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좌담회라고 볼 수 있다. 대동아의 중심 사상을 논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문학/예술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 전쟁은 새롭게 문학관을 재편했다. 그 속에 지식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대회를 통해서 만주국 작가들은 ‘만주문학’을 ‘대동아문학의 선구’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한 대만, 조선, 華北의 작가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다리를 두고, 현실적인 고민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대동아문학’을 바라보는 시선 상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던 것이다. 가령 영미와의 전쟁,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은 만주국은 물론이고 조선이나 대만의 지식인에게는 기존의 정체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다가왔지만, 華北의 지식인들과 南京정부의 지식인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내건 이념을 그대로 받아 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본고는 위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하나는 중일전쟁 시기에 있었던 어느 좌담회에서 출발하여 만주국 문학계에 ‘만주문학’ 담론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핀다. 여기에서는 집중적으로 1938년 즈음의 상황을 《滿洲日日新聞》(이후 《滿日》)을 통해서 살펴본다. 《滿日》은 만주국에서 활동한 재만 일본인 작가들이 활동한 공간이었고, 그들의 시선에서 재만 일본인과 중국인간의 만남이 어떻게 이뤄지고 그 사이에서 ‘만주문학’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핀다. 《滿日》에 실린 내용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滿日’(재만 중국인과 재만 일본인을 지칭하는 당시의 용어) 작가들의 교류를 살피고자 한다.

둘, 태평양전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만주국과 조선 지식인들의 교류를 조선에서 간행된 《國民文學》(일문) 잡지에 실린 것들을 중심으로 살핀다. 《國民文學》은 1941년 11월, 최재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순수 문예잡지이다. 조선 문단에서는 만주국 문학에 대한 소개와 언급을 찾아보기 힘든데,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전후로 하면 조금이나마 소개 작업이 이루어졌다. 《國民文學》이 만주국 문학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지를 살핌으로써, '대동아문학'에 대해서 조선 지식인이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조선 지식인과 재만 중국인 작가의 시선 차이에 대해서 잠시 살피고자 한다.

2. '만주문학' 담론의 탄생

2.1 '만주문학'의 탄생

大連에서 활동한 일본인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 활동 공간이 되어 준 것은 《滿洲日日新聞》¹⁾이다. 신문에 이른바 '만주문학'이 거론된 것은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36년경의 일이다. 이들의 맥락에서 '만주문학'이란 재만 중국인의 존재는 상정되지 않은, 말 그대로 만주에서 일본인이 하는 문학을 일컫는 것이었다. 1936년부터 1938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문학을 지칭해 공히 '만주문학'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논의에서 만주문학은 식민지문학의 일환이었고, 만주국에서의 자신들의 문학 활동을 말했다. 그 일련의 흐름을 보면, 가령 1936/3월 《滿日》 <文藝時評>에는 "평론에 나타난 만주문학론"이라는 제목의 논의들과 <植民地文學の再檢討>가 실렸고,

1) 《滿日》은 1905년 10월에 창간된 《遼東新聞》과 만주 지역 최초의 신문으로 1907년 10월에 창간된 《滿洲日報》가 1927년 11월에 합병되어 《滿洲日報》로 이름을 바꾼 후속 신문이다. 대개 이 지역에서 출판된 것 대다수가 만철의 기간지, 선전지였는데, 《滿日》은 그 중에서도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다.

1937/5월에는 ‘만주문학’의 정신과 특수성에 관한 글들이 실렸다. 초기의 글들은 한편으로는 일본과는 다른 ‘만주’에서의 삶에 주목해서 자신들의 문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만주 공작의 선을 따른 작품을 창작하는 일”(武川葉之輔)을 ‘만주문학’으로 보고, 그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자임한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초기 ‘만주문학’은 일본문학과의 연관 선상에서 사고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논의는 ‘식민지문학’ 담론으로 흘러갔다. 즉 ‘만주문학’의 역사와 수준이 아직 미천한 것을 인정, 일본문학을 만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에 강력하게 이식시키는 일이 그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봤던 시각이다.

그 이후로도 재만 일본인 작가들의 논의에서 ‘만주문학’은 항상 자신들의 일본어문학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삶에서 만주(국)가 갖는 비중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만인물(滿人物)’과 만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작가의 정체성 문제(‘고향상실’의 문제로 논의가 집중)가 부각되면서, ‘만주문학’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재만 일본인 문단에서의 ‘만주문학’에 대한 담론과 실천이 진행되면서 중일전쟁이 교착상태를 맺는 상황이 맞물려갔다. 시국의 상황에 맞춰 ‘만주문학’은 일본 제국주의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에 이르는데, 그들에게 ‘만주문학’은 만주정신과 뿔레야 뿔 수 없었다.²⁾ 이들은 “재만 방인의 식민지적 사상”을 이른바 ‘만주정신’이라고 불렀다.

만주정신을 발양해서 만주문학을 지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만주문학에서 급선무이다. 만주생활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만주정신의 기초가 되고, 또한 바른 만주정신의 파악이야말로 만주생활양식이 문화적으로 이상화될 수 있는 때이다.³⁾

2) 1930년대 초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만주국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했던 시기라면, 1930년대 중반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국내 안정을 기반으로 건국이념으로 내걸었던 ‘오족협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문학계에 등장한 것이 바로 ‘만주문학’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봄에도 만주문학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는 글들이 나왔다. 가령 <滿洲文學理論の整理>(西村眞一郎, 1938/4/25-5/6일자에 8회에 걸쳐 연재)는 만주(국)의 역사에서 만주문학은 존재하니, 식민지문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만주문학'을 창조할 수 없다고 썼다. 西村에 따르면, '만인'(당시 일본인들은 중국인을 '滿人'이라고 불렀다)에 대해서 소재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만인이나 다른 오족간의 공통된 관념이나 무언가를 공유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 관념의 형성에 필요한 것이 각각의 민족 언어로 번역해서 각 민족 간의 공감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일본은 다른 민족을 지도할 숙명을 지닌 민족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렇게 만주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정지었을 때, 다음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민족 간 공감의 문제이고, 언어의 문제였다. 이들은 직접 감정을 교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만주에서의 언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1938년에는 만주국에서의 '국어'의 문제를 다룬 논의들이 일었다. 하지만 '만주문학'을 식민지문학으로 보는 시각 한편으로는 항상 만주국 나름의 특징과 독자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존재했지만, 그것이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음을 염두에 두자.

《滿日》에 실린 기사를 검토하면, 1936년에서 1938년경에 이르는 동안 만일 작가간의 작품 교류나 인적 교류의 양상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간간히 일본어 잡지에 번역되어 실린 '滿系작품'⁴⁾과 작가에 대한 소개 기사 및 평론 기사가 실렸을 정도였다. 이렇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두 민족 작가들 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적극 등장한 것은 1939년경부터이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된 것은 1938년 11월 林房雄과 小林秀雄의 만주국 방문이다.

www.kci.go.kr

3) 金起利光, <滿洲文學と滿洲精神>, 《滿日》(1938/1/28일자)

4) 당시 만주국의 민족들은 滿系, 日系, 鮮系, 白系 등으로 불렸다.

2.2 일본 문학자들의 만주국 여행: <滿洲の文化と文學 座談會>

‘좌담회’는 근대 초기에 발명된 형식이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 논의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저널리즘의 사랑을 받았다. 게다가 일상의 언어로 진행되고 일상의 언어로 문자화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친근감과 현장감을 주었다. 그래서 좌담회는 여론을 환기하거나 한곳으로 모으거나, 또는 어떤 사안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알리는 일 등에 이용되었다. 좌담회라는 형식은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가 혹은 대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드러내는 데 더없이 훌륭한 형식이자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됐다는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⁵⁾

하지만 좌담회는 투명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견 교환, 의견의 일치를 향한 매체가 아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예외상황이 터지자, 좌담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론을 환기하고 하나의 정책을 알리고, 하나의 단일한 결론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 좋은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좌담회는 고도로 정치화된 의식(형식)이기도 한 셈이다. 거기에는 화제를 끌고 가고 결론으로 흐름을 몰고 가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환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좌담회에서 나온 결론들은 실제 행동으로 나아갔고, 집행되기에 이르렀다.

1938/12/9일자 《滿日》 <學藝欄>에는 <滿洲の文化と文學 座談會>(14회)가 실렸다. 이것은 1938년 11월 30일, 大連에서 있었던 일본의 유명한 작가 林房雄과 小林秀雄이 재만 일본인 문예 담당자와 작가 및 기자들(上村哲郎, 青木實, 横田 등)과 함께 나눈 좌담회였다. 林房雄 등은 조선을 방문한 뒤, 만

5) 일본의 저널리즘이 좌담회를 적극 이용하듯, 만주국의 중문 잡지에도 좌담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39년 이후부터 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문학이라는 분야 및 심양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자료이지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좌담회의 형식을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國都文化動向座談記>(《新青年》, 89호, 1939/7), <文選國都招宴座談錄>(《盛京時報》, 1940/2), <藝文志同人漫談會>(《新青年》, 95호, 1940/1) 등을 들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터진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좌담회를 살필 수 있다.

주국으로 왔다. 이들이 지나온 자리마다 하나의 통일된 문인단체가 만들어졌다. 좌담회 기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듯, 제1회 기사는 ‘신일본주의’라는 제목이 달렸다. “일본 내지를 비롯해 문학과 사상에서 하나의 주의로 떠오른 신일본주의”라는 제목은, 이들 여행의 목표가 일본-조선-만주국을 잇는 거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신판도를 문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자면, 이들의 여행은 일본 제국주의 영역 내에서의 문학적 단속으로 볼 수 있다.

중일전쟁은 만주국의 동원을 필요로 했다. 군수 물자 수탈과 만주국 중국인들의 지원이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문학자들을 통해서 동원에 나서는 일이 중요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와는 달리, 林房雄 등이 만주국을 방문해서 직접 중국인 작가들을 대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았다. 특히 만주국이 성립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주국의 중국인 작가들의 문단이라고 할 만한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상대해야 하는 재만 일본인 작가들의 ‘만주문학’ 담론은 아직 통일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재만 일본인들의 ‘만주문학’에 대한 이견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만주문학’을 일본문학을 주로 하고, 만주(국)의 특징을 부로 하는 방향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어쨌든 내지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방식)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여기서 재만 일본인 문단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염두에 두자. 만주국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는 위계가 잘 보여주듯, 東京 문단과 재만 일본인이 활동하는 大連이나 新京 지역의 문단도 위계 지어졌다. 이때에 이들의 관계를 말하는 용어로, 프로 대 아마추어, 중앙문단 대 지방문단이라는 말들이 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938년 이들이 가졌던 좌담회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좌담회라는 외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東京 문단의 이름으로 그리고 일본의 국책의 이름으로 ‘만주문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조율하고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滿洲の文化と文學 座談會>에서 다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하나는 중국인과의 융합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만주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좌담회가 진행되는 방식은 만주국에서 활동하는 현지 측 일본인이 현 상황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하고, 자신들이 겪은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가령 上村은 만주의 문화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른다면서 말을 한다. 하나는 일본문화와 재래의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하나의 만주국문화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만주로 온 일본인 농업 이민자나 기타 다른 일들로 만주국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본인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외에도 民族協和와 王道樂土라는 만주국의 國是에 관해서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현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현지 측의 발언을 들은 후, 林房雄과 小林秀雄의 질문과 답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자면 좌담회의 주인과 같은 입장은 재만 일본인 문화종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국시에 따른 결론을 짓는 자는 林房雄과 小林秀雄에게 있었다. 현실의 문제들을 대문학자인 이들은 가지런히 정리한다는 느낌을 준다.

어쨌든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林房雄 등의 대가들과 이야기를 거쳐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었을까. 林房雄은 만주국 체류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도 新京을 비롯해 만주국의 도시들을 돌면서 "일만에 존재하는 거리"에 대해서 피부로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 특히 林房雄은 만주국의 공무원인 중국인조차 완고하여 일본인에게 완전히 심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중국인과 어떻게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했다. 중국인의 완고함이 생활적 기초에서 나왔다면, 민족적인 문제라면, 그들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하나는 그들이 협화하고 공생하도록 관심을 돌리는 것, 다른 하나는 일본인들이 그들의 완고함을 동화시킬 것.

문학자인 두 사람이기에 가능했을 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만일'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장치가 바로 문학이었다. 문학을 통해서 협화와 동화로 가는 것. 여기서 '만주문학'은 당연히 일본문학이 위주가 되어야하겠지만, 중국인들의 문학에 대한 끊임없는 계몽(?) 혹은 국책이나 '건국문학'으로 끌어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식민지문학'으로 보던 '만주문학'을 대하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인 문단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을 하지 않았다. 중국인 문단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과의 협화와 교류 이전에 작품에 대한 소개와 접근이 가능해야 했다. 물론 이것과 더불어 재만 일본인 내부의 사상적 일치와 단결이 요구되었다.

두 번째 문제인 '만주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小林秀雄은 만주의 낮은 문화적 수준으로는 근대문학을 낳을 수 없다고 봤다. 그렇기에 일본문학 주도의 식민지문학론 쪽으로 '만주문학'의 성격은 규정되어 갔다. 小林秀雄은 당분간 만주에 독자적인 문학이 생길 수 없으며, 만약 생긴다고 한다면 농민문학의 맹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농민문학은 만주국에 이식된 대량 일본인 이민자들에 의해서 창작될 문학을 말한다. 그의 발언은 당시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만주문학'론이 독자적 '만주문학'이든 식민지/혹은 이식문학이든 상관없이, 중국인을 팔호 친 상태에서 재만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문학을 논의하는 이들의 기본 전제는 만주국 건국에 대한 굳은 신념 위에 놓여 있다. 즉 이들로서는 만주국 건국이념에 대해서 전적인 동감을 보인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을 논의한 것이다.

2.3 좌담회의 정치성

이 두 문학가의 뒤를 쫓아서 실제적으로 이뤄진 일들, 그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문학종사자들의 일원화된 단체가 만들어졌다(단박에 단체가 만들어지는 않았고,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봤다). 林房雄과 小林秀雄은 大連에 오기 전인 9월에 이미 新京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11월에는 《滿日》과 만철의 주최로 大連에서 林房雄과 小林秀雄의 강연회가 개최되었고, 大連 방문

을 맞이하여 《滿日》의 주간으로 좌담회가 열렸던 것이다. 이들은 新京에서는 滿洲浪漫派 동인과 정부 문화 관련 관리들과 만났고, 大連에서는 실제로 활동을 이어왔던 文話會⁶⁾ 회원을 만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회는 1939년 8월에 大連에서 新京으로 본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등, 명실 공히 ‘만주국’의 문화회가 되려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만주국은 기존의 문화회를 이용해서 하나의 일원화된 문화단체를 기획했다. 그리고 만주문화회 속에 오족의 작가들이 참석하도록 종용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각 민족문학들에 대한 소개와 번역, 그리고 그들을 동원하고 만나는 일이었다. 만주국의 각 민족 작가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물론 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가입을 꺼려했지만, 언제까지나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둘째, 단체가입을 통해서 만일 작가들 간의 만남이 늘었다. 1939/5/23일자 《滿日》<季節風>기사에 따르면, “만인에문잡지” 《藝文志》 창간호가 나온 일을 기념하여 만주문화회 소속 재만 일본인 작가들이 창간 피로연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인 작가들은 다소 일본 작가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자 했다고 한다. 그들과의 만남을 꺼려했다는 것. 게다가 아래와 같은 ‘아이러니한 대담’을 서로 나누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략 훌륭한 것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니오, 정말이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좋지만.” “문화의 촉진에 크게 역할을 한 듯해요.” “아무도 읽지 않아요.” “아니, 이것이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문학은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잠시의 어려움입니다. 끝내는 잘 읽힐 겁니다. 필자가 예상하는 것 외로 사회적 효용이 있을 겁니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한 권만 만들어 회람이라도 하는 편이 안전하겠지요.”⁷⁾

6) 滿洲文話會는 만주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작가들 단체로, 1937년 6월 30일 大連에서 결성되었다. 만주문화회는 당시 일본에서 성행한 文話會(文藝懇話會의 줄임말)의 형태를 빌어 大連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 작가가 중심이 되어 만든 문학단체다. 친목단체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만주문화회 내부의 방향은 다양했다.

7) <藝文誌編輯者との問答>(《滿日》, <季節風>, 1939/6/25일자)

기자는 위와 같은 회화에서 후자가 편집담당자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말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일본인 작가들과 '기꺼이' 만나고자 하지 않은 것과 藝文志派의 일원인 古丁이 《藝文志》라는 순문예를 실을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한 일에 대해서 조금은 맥 빠진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분명 재만 중국인 작가의 입장에서는 일본인과의 만남이나 그들이 제기하는 만주문학 담론의 장 속에 포섭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⁸⁾

1939/12/3일자 <消息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제2회 현지 파견이라는 제목으로 만주문화회에서는 협화회의 후원으로 今村榮治, 小松 두 사람을 동만 방면으로 파견한다. 출발은 6일, 약 3주간의 예정”이라는 내용이였다. 재만 중국인 작가인 小松과 조선인 今村榮治가 만주문화회의 일원으로 동만 지역으로 현지 파견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만주문화회의 이름으로 문필가들의 동원이 실행되고, 그 작업에 재만 중국인 작가들이 동원되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재만 중국인 작가의 작품 번역이 늘었다. 1939년, 만주국 내의 일본 잡지와 신문에는 중국인 작가의 작품이 번역되어 실렸으며, 일본 국내에서 大內隆雄의 편역으로 《滿人作家小説集 原野》가 출간되기도 했다(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대부분 藝文志派의 작품).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재만 중국인 문단에서 藝文志派는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⁹⁾ 그리고 1942년 만주국 건국10주년을 전후로 하여 작칭의 작품이 일본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아쿠타가와상에 재만 일본인 작가의 작품이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후에는 만주국 각 민족의 작품이 선집(《日滿露各民族作家作品選集》 등)의 형태로 출간되었다.

8) 재만 중국인 작가의 대표로서 藝文志事務會의 작가들이 선택되었음을 말해준다. 재만 중국인 작가의 대표로 藝文志派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그중에서도 우선, 구문학과 신문학 사이의 선택, 지역적으로 新京, 奉天, 大連 등의 선택, 일본어를 잘 하느냐의 여부, 친분 등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9) 1940년 《新青年》 신년호에 실린 <藝文志同人漫談會>를 보면, 藝文志派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당시의 문학 중심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넷째, '만주문학' 담론이 확대되었다. 만일 작가 간의 교류와 작품 번역과 소개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발 '만주문학' 담론이 점차 중국인 작가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재만 중국인 작가들에 의한 '만주문학' 담론은 '향토문학'의 형태를 띠는 등, 재만 일본인의 동향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러다가 만주국의 중국인 일본인 작가의 일원화된 조직과 그 사상적 내용을 담보한 '만주문학'을 기반으로 신체제 수립이라는 국책이 접합하여, 1941년 3월 <藝文指導要綱>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정리하면, 林房雄과 小林秀雄의 만주국 방문과 그들이 지역마다 행했던 강연회와 좌담회는 이전에 있었던 '만주문학' 담론을 정리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이후의 만주문학이 나아갈 바를 지시했다는 측면에서, 이후 '만주문학' 논의에 깊은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재만 중국인 작가의 가입으로 만주문화회는 예문가협회를 거쳐 예문연맹 등의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일원화된 단체 내에서 각 민족의 문화인들은 현지시찰이나 현지보고 등 전쟁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3. 또 다른 좌담회

3.1 1938년 조선에서 있었던 좌담회

1938년, 林房雄과 小林秀雄은 만주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조선을 방문했다. 조선 방문과 만주국 방문,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문학가들과의 좌담회는 일정한 똑같은 양상의 결과들을 낳았다. 물론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달랐지만, 전쟁과 문학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과 만주국의 대응은 일관됐다. 즉 문학자들의 일원화된 단체가 만들어졌고(만주국에서는 만주문화회, 이후에는 예문연맹이, 조선에서는 조선문인협회, 나

아가 일본에서는 문예보국회가 수립됐다), 신체제 수립 하에서 문학자들의 문학보국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林房雄 등이 京城에서 조선인 작가들과 가진 좌담회는 <朝鮮文化의將來と現在>라는 제목으로 《京城日報》(1938/11/29-12/7)에 실렸다. 京城에서 조선인 작가들과 만난 그들은 東京, 京城, 新京에서 공연된 연극 <春香傳>에서 불거진 조선의 문화와 언어,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장혁주(張赫宙)의 <春香傳>은 조선인 작가들 간의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켰다. 흥미롭게도 장혁주의 <春香傳>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藝文志》(중문)에도 실렸다. 藝文志派의 일원인 外文의 번역으로 잡지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실었지만,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春香傳>이 일본이나 조선 문학계에 미친 영향이나 논란을 알고서 번역을 했다고는 보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 藝文志派로 대표되는 재만 중국인 작가의 경우, 林房雄 등의 당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흘러가는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서 시작되는 문화계의 동향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⁰⁾

중일전쟁의 전세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39년 10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주선으로 '조선문인협회'가 결성되었고, 이광수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선문인협회는 "새로운 국민문학의 건설과 내선일체의 구현"을 창립 취지로 내세우며, 중일전쟁 총력지원을 위한 문인의 대동단결과 문필보국을 꾀하고자 했다.

중일전쟁에 참여하는 일본 近衛 내각의 '동아신질서' 구상은, 1938년 1월 제1차 성명에서는 국민당 정부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제2차 1938년 11월(제3차는 12월)의 성명의 골자가 바로 '동아신질서의 건설'이다.

10) 장혁주의 <春香傳>이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林房雄 등의 만한 여행의 결과물로도 볼 수 있다. 즉 林房雄 등이 경성에서 나눈 좌담회가 <春香傳>을 둘러싸고 이뤄졌음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春香傳>이 일본이었기에 번역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藝文志派가 이 작품을 번역했을 때 조선의 문단 사정까지 숙지하고 있었을까는 의문이다.

이것은 중일전쟁의 장기화 국면을 타파하고 국내적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안정적 민중 동원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신체제운동'에는 국내적으로 강력한 통제경제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화해를 통해 전쟁을 끝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¹¹⁾ 그리고 이 구상을 집약해서 1940년 7월 제2차 近衛 내각은 <基本國策要綱>을 발표했다. 국책으로 '동아 신질서 건설'과 '국방국가체제의 완성'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민관조직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동아 신질서 건설'은 전쟁의 향방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라는 틀을 넘어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동양의 해방을 가져올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바꾸게 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결과,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당시에는 '대동아전쟁')이 터졌다. 일본 군비 확충을 위한 식민지의 동원이 있었다. 조선과 대만은 물론이고 만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동원에 응하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절필을 주장하거나 조선을 떠나 만주국으로 간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다른 하나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광역 질서 속에 조선 민족의 지위를 재조정하여 민족을 절멸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전시체제 하에서 사상통제와 물자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역설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대동아공영권의 위계 속에서 조선은 일본의 제2신민으로서 위치 짓고 싶어 한 욕망의 발현이었던 셈이다.

신체제 수립 직후인 1940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신문과 잡지들이 폐간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용지 절약 등이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잡지 통제를 통한 조선 문단의 혁신이었다.¹²⁾ 그리고 모든 문예지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의 발표와 교시의 공간을 남겨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國民文學》

11) 제2차 近衛 성명의 주된 내용은, '선린우호, 공동방위, 경제제휴'가 주원칙이다. 近衛 성명은 항일을 부르짖는 중국 민중의 강한 排日정서를 읽어낸 결과로 나온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은 三木清의 '동아협동체론'과 石原莞爾의 '동아연맹론'이라고 할 수 있다. 홍종욱, <중일전쟁기(1937-1941)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그 논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37쪽.

12)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문경연, 최정욱 등 역, 소명출판, 해설, 9쪽)

이었다.¹³⁾ 곁에서 보면, 만주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문학회 재편 과정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위로부터의 조직개편과 문단의 혁신을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강제와 일본의 대 문호들의 격려와 설득 등의 형태로 진척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시기적으로 1938년 林房雄과 小林秀雄의 만한 여행과 강연회 및 좌담회는 신체제 수립의 기초 및 그 움직임을 선취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즉 문학회에서 전쟁과 문학의 관계, 정치와 문학에 관한 논의가 당시 문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화두였음을 보여준다. 이럴 때 중요하게 대두된 주제가 바로 동양의 화합이었고,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학사상, 그리고 언어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문학 언어로 조선어를 택하느냐, ‘국어’인 일본어를 택하느냐가 조선 문단에서는 큰 이슈였다. 만주국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만주국의 국어는 ‘만주어’ 즉 중국어와 일본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어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 조선과 만주국, 각각 문학적 상황이 다른 이유로 해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사이 기간 동안에는 일본, 조선, 만주국(또는 중국)을 하나로 아우르는 논의의 접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대동아문학’ 및 신체제 수립의 단계로 가면서 서로 하나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을 차츰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모인 자리, 1942년 11월 대동아문학자대회가 열렸다.¹⁴⁾

13) 조선의 경우와 비슷하게 만주국에서도 작가들의 일원화된 단체가 만들어졌고, 잡지와 신문 등을 폐간하면서 순문예지로 《藝文》(중문)을 존속시켰다.

14) 大村益夫은 《滿日》을 정리한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제 말기까지 《滿日》에 조선인 작품은 3편 정도가 게재되었을 뿐, 본격적으로 《滿日》 신문지상에 조선인이 쓴 문학으로는 1938년의 今村榮治 등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일들에서 보면, 역시 만주 지역에 있어서의 조선인의 문학 활동은 1937-38년 이후의 일로 파악할 것이다(이것 이외 간도지역의 문예상황을 보여주는 기사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적을지라도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흥미롭고 또한 귀중하다).” 《滿日》은 1940년에 들어서면서 <<光の中に>>における民族性の問題>(상중하), <朝鮮文化の諸相>(10회 연재)이 실렸다. 특히 후자의 평론은 조선에서 만주로 몸을 피신한 박광양 등의 4인에 의해서 쓰여진 조선문화평론이라는 점에서, 조선인 작가들에게 만주국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3.2 1941년 만주국에서 있었던 좌담회

《滿日》 1941/4/13-18일자에는 川端康成가 참석한 좌담회 기사가 실려 있다. 참석자들은 檀一雄, 北村謙次郎, 綠川實, 田中總一郎, 그리고 劉爵青 등이다. 新京에서 열린 좌담회로, 만주낭만파가 주를 이루지만, 여기에는 大連의 《滿日》 담당자가 참가했고, 재만 중국인 작가로 藝文志派의 爵青이 참석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보자면 만주국 문학계 전체를 아우른 진용이라고 할 수 있다. 爵青의 참가는 흡사 재만 중국인 작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좌담회에 참석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의 발언은 재만 중국인 작가의 공식적 입장인양 반향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안배가 바로 문학에서의 민족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환상을 잘 이용한 것이 또한 문학선집이다. 만주국의 만인 작가의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는 川端은, 이 방문이 진행되는 동안 《滿洲國各民族創作選集》의 편선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로부터 문학자들의 만주여행이나 문학좌담은 정치적인 매체로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좌담회에서는 시기적으로 <藝文指導要綱>이 발표되고 난 뒤라, 그것과 관련한 내용 및 일본으로의 진출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만주문학의 성격과 관련된다. 이 좌담회가 눈길을 끄는 것은, 爵青이 민족협화의 모양새를 위해 동원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당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1939년, 일본의 '외지문학' 붐을 타고 만주국의 중국인 작품과 재만 일본인 작품들이 일본에 소개되었다. 그러면서 東京의 중앙문단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문학자들이 등장했다. 이럴 때 일본인 작가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만주적인 것을 어떻게 녹여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중국인 작가의 경우는 언어가 문제였다. 더구나 이 문제는 원고료 문제나 발표 공간의 확대 등의 문제는 직업작가로 살아가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만주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 진출하게 될 때, '만주문학'은 만주적인 소

재를 다루기 마련인데, 만주적인 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가가 논의의 초점이었다.

籐井(大連)이나 北村(新京의 만주낭만파) 등의 언급에 의하면, 재만 일본인 작가들의 경우 이제야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만주에 대해서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협소한 시야에서 벗어나 일본적인 것을 쓰는데서 벗어나 만주적인 소재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籐井의 답은 단순히 “제재의 진귀함”으로 팔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경우, 아직껏 “사상체계를 만드는 일”이 당면과제라고 봤다. 문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무엇을 써야하는지, 아직 고민이 익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답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만주’라는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사상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자, 재만 일본인 작가들이 만주를 이국정취로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에 대한 우회적인 질책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삶과 관련 있다. 당시 일본에서 불었던 ‘외지문학’ 붐과 연동해서 나온 언급이자 위에서 말한 원고료, 직업작가 등의 문제와 닿아있다. 즉 직업작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넓은 일본 시장이 필요하니, 일본어로 창작을 한다면 진출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고 川端은 질문했다. 이것은 1939년 만주국어연구회의 설립, 기관지를 출간하는 등의 활동에서 보자면, 만주국의 문학 언어를 일본어로 하는 편이 좋지 않은가 하는 우회적인 물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籐井(만주국어연구회의 회원이기도 하다)의 답은 언어는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번역을 통하는 편이 “자신이 쓴 것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살필 수 있어 ‘흥취도 있고 편하다’고 말한다. 거리두기를 하려는 몸짓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좌담회나 기타 다른 좌담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번역’과 언어 및 교류의 문제는 이후 3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도 줄곧 이야기되었다.

1941년에 있었던 위의 좌담회나 《滿日》에 실린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글(특히 <藝文指導要綱> 이후의 반응을 쓴 글)은 모두 문예보국이나 작가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예지를 창간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만주국에 한정되지 않고, 조금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조선에서도 논의되었다. 이것은 시국의 요청이기도 했겠지만, 전쟁 상황이 만든 용지 부족이나 경제 불황 등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라는 상황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1942년 대동아문학을 논의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고, 거기서 언어, 번역, 사상, 문학보국 등의 안건으로 대토론회를 열기에 이른 것이다.

4. ‘대동아문학자대회’의 개최

4.1 대회에 참여한 만주국과 조선의 작가들¹⁵⁾

1942년 11월의 신문과 잡지는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행해졌던 것들을 실어 나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일본의 《文藝》 잡지는 회의 기간에 있었던 참가 작가들의 발언들을 꼼꼼히 적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만주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藝文》(중문)이나 《滿日》(일문) 등도 짤막하지만 대회의 요지들을 소개하고 있다. 발간 1주년을 맞은 《國民文學》 잡지의 경우는 제1회 대회에 대한 스케치와 기사를 실고 있지 않지만, 제2회 대회에 대해서는 기사를 내고 있다.¹⁶⁾

15) 제1회 대회의 개최에서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여한 자들의 공식적 발언은 《文藝》(194/12월호: 10권12호)에 그대로 실렸다. 제2회 대회는 《文學報國》(3호, 1943/9/10일자)에 실렸다. 본고에서 인용되는 제1회 관련 내용은 《文藝》를, 제2회 관련 내용은 《文學報國》에서 인용했음을 알려둔다. 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하면서 나왔던 발언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에서는 대회가 끝난 뒤에 이뤄졌던 크고 작은 글들을 통해서 살피고자 한다.

16) 다만 《國民文學》에는 田中梅吉의 <來るべき古典主義の文學>이라는 제목으로 대동아 문예부흥의 중핵 구조로써 고전주의를 제시하는 글을 실고 있다(1942/12월호).

먼저 제1회와 제2회 대회에 참가한 작가들의 명단을 보자. 여기서는 만주국 대표와 조선인 대표들의 이름만 거론하기로 한다. 만주국 측 대표로, 제1회(1942/11, 東京)에는 古丁, 爵青, 吳瑛, 小松(재만 중국인)과 山田清三郎(재만 일본인)와 바이코프(백계 러시아)가 참석했다. 조선 측 대표로 香山光郎(이광수), 兪鎮午, 芳村香道(박영희), 金村龍濟(김용제), 辛島驍, 寺田瑛이 참석했다. 제2회(1943/8)에는 古丁, 田兵, 吳郎, 山田清三郎, 大內隆雄이 참석했다. 조선 측 대표로 이광수, 유진오, 최재서 등이 참석했다.

위의 만주국 대표 작가들은 만주국에서 잘 나가는 작가들로, 大內隆雄에 의해서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어 이미 일본에서도 이름을 날린 작가들이었다. 물론 이들은 화북에서 온 작가들(錢稻孫)이나 일본의 대작가들에 비해서 지명도와 문학적 성취도는 낮았고, 문학사로 보더라도 조선의 대표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천하지만, 신생 만주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제1회 대회는 일본문학보국회의 주최로, “대동아정신의 수립, 대동아정신의 강화보급, 문학에 의한 민족 간 사상문화의 융합방법 및 문화에 의한 대동아전쟁 완수에 대한 방법”을 의제로 내걸었다. 제1회의 논점은 무엇을 대동아정신 혹은 대동아 사상으로 삼을 것인가였다. 중국 측 지식인들과 일본 측 지식인들 간의 이견이 등장했던 장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진동하는 만주국 대표인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만주국 대표로 인사말을 한 古丁은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따르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만주문학을 대동아문학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는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만주국은 “북변진호(北邊鎮護)”의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문학에 있어서도 북변진호의 임무를 한시도 잊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만주국이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의 선구적인 모습을 선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동아문학’의 선구가 바로 이른바 ‘만주문학’이라는 논지였다. 하지만 古丁은 덧붙이길, 민족협화와 건국정신 실현을 문학적으로 성취하자는 이념을 갖고는 있지만, 만주문학의 수준은 낮아 “일본문학자의 교시(敎示)”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만주문학'을 '대동아문학'의 선구로 보는 古丁 등의 견해는 당시 만주국에서는 공공연히 이야기되던 것이었다. 그리고 대회를 지나면서는 '만주문학'='대동아문학'이라는 공식이 정착되는 양상이었다.

조선의 대표로 발언을 한 香山光郎은 대동아정신을 “자기를 버리는 정신”이라고 봤다. 유가와 불교의 언어로 보자면, 인(仁)이고 자비(慈悲)일 터이나,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천황에게 받드는” 일본정신으로 존재한다고 봤다. 그렇기에 대동아정신은 ‘수립’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일본정신을 발견하고, 현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발언이 진행되는 중 이광수와 유진오의 발언은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¹⁷⁾ 그 박수는 무얼 의미할까.

대회가 끝나고 난 뒤, 흥미롭게도 古丁은 대회의 감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제가 특히 감격했던 것은 조선대표인 香山 선생의 발언이었습니다”¹⁸⁾라고.

저 엄숙한 태도도 훌륭했습니다만, 그 신념과 열정(熱)말입니다. 아마도 東京의 문사도 그 정도만큼 밀고나간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바로, 정통으로 매섭게 따져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실로 감격의 일순간이었습니다.¹⁹⁾

제1회 대회에서 이광수는 ‘내선일체’를 완전히 체현해서 보여주는 양상이었다. 만주국이 건국이념과 민족협화를 가지고 대동아공영권에 자신의 장소를 차지한다면, 조선의 경우는 내선일체였다. 특히 내선일체를 이념과 이성으로

17) 《文藝》 잡지는 회장의 분위기를 전담하려는 듯, 발언의 중간과 끝에 있었던 박수를 괄호를 쳐서 쓰고 있다. ‘박수’를 세어보면, 당시 현장에서 누구의 발언이 가장 열렬히 환영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광수는 2번, 유진오는 무려 4번, 靑靑은 2번의 박수를 받았다. 일본인 청중들이 듣기 위한 내용을 발언했음을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데, 사석에서 일본인 문인들은 그들의 발언이 진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을 참고 바람.

18) 《新滿洲》에 실린 좌담회를 보면, 靑靑은 조선 문단의 “신구 작가들 정예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으로, 특별하게 조선 작가에 대한 인상을 말하고 있지 않다.

19) <大東亞文學者大會交遊座談會>, 《綠旗》(7권 12호, 1941/12), 51쪽.

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던져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절박함.²⁰⁾ 그것을 古丁은 감지했던 것일까. 古丁은 나이 지긋한 조선인 문필가 이광수의 발언에 깊이 감격했다고 밝히지만, 그 감격의 정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왜 古丁은 이광수의 말에 감격했던 것일까. 그리고 사실 민족주의자 이광수의 친일행적도 이 시기에 몰려 있는 바, 조선 문인의 친일행적은 배경과 경험, 역사에서 만주국 지식인의 한간행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각 민족 작가들이 처한 상황, 고민을 표면적인 형태로나마 드러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4.2 ‘대동아문학’을 바라보는 《國民文學》의 시선

제2회 대회는 1943년 8월 東京에서 열렸다. ‘결전문학자대회’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전쟁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동아 전쟁의 완수, 영미문화의 격멸, 공영권 문화 확립 그리고 문학자의 협력과 실천”을 중심과제로 삼았다. 총력전으로 정의된 현대전쟁에 문학이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할 터인데, 문학자들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사상전의 수행이었다. 사상전이라는 측면에서 제2회 대회는 제1회 대회에서 논의됐던 바, 무엇이 대동아정신의 중심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졌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대동아의 사상과 정서의 중심을 중국이 쫓 것인가, 일본이 쫓 것인가의 논의였다. 제2회에 들어오면 중국 측이 제기하는 유가중심주의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황도주의인가가 부각되었다(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謝希平과 佐藤春夫의 접

20) 이광수는 1940년경부터 자신을 ‘행자(行者)’라고 지칭했다. 행자, 그것은 바로 ‘일본정신의 수행’이었다.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절감한 그는, 법적인 일본 신민의 지위를 갖는데서 그치지 않고 혼의 밑바닥까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수행에 몰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대동아문학자대회가 끝난 뒤에 남긴 <三京印象記>에는, 김윤식에 의하면 이광수가 ‘행자의 길을 통해서 ‘굴욕감’을 ‘자부심’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쓰여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62쪽.

전, 그리고 片剛鐵兵이 周作人을 '反動大家'라고 비판하는 부분).

제2회 대회의 이모조모는 조선에서는 《國民文學》(1943년 10월호)을 통해서, 만주국에서는 《藝文》잡지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질문과 발언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는 일문 《文學報國》에서 살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만 중문 《藝文》과 조선에서 발행되는 《國民文學》(일문)에 취사선택되어 실린 글들을 통해서, 편집자들의 경향을 짐작하고자 할 나름이다.

《國民文學》의 주편집인 최재서는 제2회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는 참석의 과정과 감상을 <大東亞意識の目覺め>에서 밝히고 있다. 그의 글은 <文學者の提携>(小林秀雄), <大東亞文學建設綱領の樹立>(田平: 만주국대표인 田兵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中國和平運動與大東亞戰爭(중문)>(謝希平: 화중 대표), <美英文化よりの解放>(包崇信: 몽골 대표), <皇民文學の樹立>(周金波: 대만 대표)과 함께 실렸다. 이로 볼 때, 최재서도 대회가 갖는 공영권적인 면모에 신경을 써서 글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재서가 조선 문학을 지방문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경향과 연동해서 볼 때, 공영권의 각국의 문학들이 어떤 식으로 대동아문학과 연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편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이런 면모는 대회의 여정을 전달해주는 그의 감상문에서 살필 수 있다.

최재서는 시모노세키에서 합류한 만주국, 화북, 몽골의 대표자들과 더불어 기차를 타고 東京으로 갔다. 가는 길에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동양 문학자들 간의 이심전심”, 즉 “일일이 의논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충분히 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썼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는 일본의 과거를 조선의 과거와 대화시키고, 그 속에 지금의 현재를 자리 시킨다.

대륙의 각지에서 학자, 승려, 문인, 기예인(技藝人)이 속속 바다를 건너왔다. 그 중에는 해자와 담징의 이름도 보인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왔을까? 별로 구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야마토국에 쇼토쿠 천자가 계시다고 듣고, 그 이름을 사모하여 온 것이다. 당시 일본의 격렬한 문화적 의식은 근린 제국의 문화인들에게는 참기 힘든 매력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들의 일본으로의 귀의는

흐르는 물과 같이 모두 산뜻한 것이었다.²¹⁾

최재서는 징병제와 처우개선 및 ‘국어’ 사용이라는 시국의 변화에 따라, 조선에서의 ‘내선일체’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왔다. 그의 고민은 담징과 혜자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고대사의 한일 교류에서 해결된다. 최재서의 결론은 이광수의 피와 혼을 바꾸는 듯한 완전 변신에 기인하지 않고, 고대사라는 과거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추적한 결과 얻어진다. 최재서가 보기에, 옛날에는 대륙과 조선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갔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대륙으로 문화가 전해진다. “동양의 문화가 일본에 잘 보존되고 나아가 정련이 가해져 때가 오면 세계에 그 빛을 발할 운명”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영권의 민족들은 “동양의 문화유산”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여, 자기들이 처한 각각의 장소에서 창조적으로 문화를 창조한다. 그럴 때, 서양문화의 척도로 재단된 동양문화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최재서는 조선 문학은 더 이상 조선인만의 문학이 아니라, 대동아민족을 위한 문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조선에 가장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갇히거나 조선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떠나 대동아로부터 조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획득하고, 그 위치에 설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봤다. 그의 시선으로 보자면, 만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재서가 제2회 대회에 참가하고 난 뒤, 《國民文學》 잡지에는 만주문학 관련 기사들이 게재되었다.²²⁾ 이외에 흥미로운 글은 만주국에서 벌어진 “결전예문회의”에 대한 기록이다. <新京旅行>(松村紘一, 1944/1)과 石田耕造(최재서의 창씨개명)의 <古丁氏へ>(1945/1)이다. 앞에서 최재서가 대동아 속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고, 그가 조선을 대동아의

21) 최재서, <大東亞意識の目覺め>(《國民文學》, 최재서 주편, 1943/10월호, 역락 영인본)

22) 山本謙太郎의 글로, <滿洲にの半島人藝文の動向>(1944/6)과 <在滿鮮系藝文界の昨今>(1945/2)이 있다. 이외에도 <滿洲文學について>(徳田馨, 1943/4), <滿洲の白系ロシア文學>(牧洋, 1944/3), <最近の華北文壇>(牧洋, 1944/6)이나 정인택의 만주개척총기행 등. 大內隆雄의 <大東亞文學賞の作品>(1943/11)이나 吳瑛의 <滿洲女流作家群像>(1945/2)이 번역되어 실렸고,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인의 동향을 그리는 글이 실렸다.

한 지역으로 본 시각은 만주국을 보는 데서도 마찬가지였다. 위의 <古丁氏へ>라는 글을 보자.

이 글은 최재서가 만주국의 결전예문회의를 참관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쓴 글이다.²³⁾ 그는 만주국과 조선이 사상과 정신에서 완전히 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다고 봤다. 민족협화가 만주국의 건국정신이듯, 그것은 예문의 생명이고 근간이다. 조선에서는 내선일체가 모든 문화 활동의 근본정신이다. 그것을 ‘화합과 숭’ 정신이라고 봤다. 상통하는 만큼 만주국과 조선은 하나의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고 봤는데, 최재서는 그것을 지방주의로 봤다.

최재서는 古丁에게 들은 바, 新京에서 문학가로 이름이 나게 되면 北京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 시작한다. 그렇듯 京城에서는 작가들이 東京으로 가려한다. 北京과 東京, 이 두 도시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 출판 등 문화적으로 중앙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東京의 문학은 지방의 문학이 기대야 할 바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흉내 내어서는 신일본문학 건설은 완성할 수 없다. 그럼으로 만주국이나 조선은 신일본문학 건설이라는 큰 이상은 공유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지방에 맞는, 그 지방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 맞는 방식의 문학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서와 만주국의 지식인들은 표면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주도, 혹은 일본 문화의 주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재서의 논의에 따르면, 공영권에 참가하는 민족의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현장성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안고 공영권 내에 참여하는 방식. 그것을 그는 만주국의 古丁에게 주는 글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재서의 이야기에 과연 古丁은 어떤 식의 답을 갖고 있었을까.

23) 제목에서 보이듯,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지만 내용을 보면 최재서와 古丁 간에 개인적인 친분을 찾을 수 없다. 최재서에게 있어 古丁은 만주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에 다름 아니고, 그에게 문학적인 의견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바에서 쓴 글로 보인다.

4.3 귀국길에 오른 만주국과 조선의 대표자들

제1회 대회는 개최와 폐막까지 신문과 잡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작가들의 동향을 소개하는 기사²⁴⁾를 실을 뿐만 아니라, 대회가 끝난 뒤에는 참가한 작가들로부터 감상문들을 받아 실었다. 《滿日》은 “만주 대표가 보내온 감격의 수기”라는 제목의 감상문들을 받았다. 小松은 <日本禮讚>을, 古丁은 <若き大丈夫>를, 吳瑛은 <心魂一如>, 爵青은 <偶感>, 山田清三郎은 <手記> 등을 기고했다. 그리고 이런 짧은 수기와는 다르게 古丁은 <大東亞文學者大會行>, <滿洲文學に就ての走り書(상중하)>, <萬葉原氏と載道言志(1-4)>를 실었으며, 大內隆雄은 <大東亞戰爭以後の滿系文壇の動向(上下)>을 썼다.

제만 중국인 작가들이 남긴 글들은 모두 일본에서 느낀 바를 적은 것으로, 특히 전쟁에 임하는 일본인의 자세에 대한 감탄으로 채워져 있다. 古丁은 대회 기간 동안 일본에서 본 것 중 항공 훈련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받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썼다. 젊은 용사들의 굳건한 의지, 육체와 정신의 강건함, 그리고 유도와 검도 등에 대해서 그는 찬사를 남겼다. 시모노세키 뒷 골목에서 발견한 굳건하게 전후를 지키는 일본 여성의 모습에 감탄을 남겼다.

古丁의 <大東亞文學者大會行>은 여행의 일정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 의하면, 古丁이 新京을 떠난 것은 10월 28일로, 그는 ‘노조미’를 타고 奉天, 京城을 거쳐서 釜山에 도착했다. 釜山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시모노세키에 상륙한 것이 바로 10월 30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古丁의 인상은 적혀 있지 않다. 국경을 넘는다든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혹은 당시 일본제국의 관도 내부에서의 이동처럼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의 감각으로 보자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지금보다 당시의 사정이 더

24) <新しき文學の創造へ：滿洲文學者代表 帝都の第1聲>(1942/11/3), <同軌：大東亞文學者列車>, <逞しき文化の建設：共榮圈の文學者代表一堂に集ふ>, <共榮圈の文化確立へ：烈々たり筆の闘魂>, <育てるぞ, 大東亞精神：誓ひ固し文學者大會終わる>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국의 판도에서 이들은 국경선을 넘나들었다기보다는 다른 지방으로 간 것 같은 느낌으로 조선과 일본으로 건너갔음직한 여행 루트를 보여준다. 그래서 조선을 가로질러 가면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시선에 조선은 어떤 풍광으로도 남지 않았는데, 중간에 잠시 내려서의 추억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古丁에 따르면, 시모노세키의 여관에서 아침밥을 먹는 “일본 측 조선반의 香山光郎과 유진오” 등을 만났다고 한다. 그날 저녁 이들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환락했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남기지 않고 있다.

열흘간의 일정이 완전히 끝나자, 13일에 만주국 대표들은 귀국길에 올랐다. 만주국, 중국, 몽골의 대표들은 조선을 경유해서 기차를 타고 귀국하는 일정을 선택했다. 또 다른 대동아공영권의 양상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귀국길에 오른 기차를 통해서도 가능했다. 기차가 부산을 떠나 조선을 가로 지르는 사이를 이용해 조선문인협회가 움직였다. 조선문인협회는 대표들이 특급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간단한 좌담회를 열었다. 그 기록이 《綠旗》(7권 12호, 1941/12)에 실렸다. 출석자의 면면은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총 3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형태였다. 그래서 적극적인 토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대회를 마친 이후의 감상이나 대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반복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대표들이 남긴 글들은 편폭이 그다지 길지도 않다.

《綠旗》의 기록은 아주 간단하여, 일본어를 몰라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吳瑛)고 하거나,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너무 짧았다(古丁)거나, ‘日滿一德一心’이 일본의 이세신궁에서 연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爵靑과 小松)거나 하는 감상과 발언을 남기고 있다. 화북과 화중의 대표들은 서양사상을 몰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周化人)하고, 그런 한편에서 하나의 동양적 이상의 수립(沈啓無)해야 하고, 아시아의 문예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柳雨生)해야 하고, 이러한 동양적 이상을 문학 창작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남기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의 文報와 같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인간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거나 창작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남겼는데, 이러한 발언들은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작가들이 남긴 것과 대동소이었다.

제2회 대회를 마치고 만주국 대표 吳郎은 《藝文志》에 일본 인상기를 발표했는데, 그 속에서 유진오에 대한 한 구절을 남겼다. 특히 吳郎의 기록에 의하면, 古丁에 대한 스케치도 있는데, 古丁은 매번 귀가 빨갛게 될 정도로 술에 취하면 항상 “백척간두경진일보(百尺竿頭, 更進一步)”를 읊조렸다고 했다. 또한 조선인 친구 유진오가 “감 3년, 복숭아 3년, 달마 7년, 나는 일생을(柿三年, 桃李三年, 達磨七年, 俺以一生)”이라는 구절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썼다. 吳郎은 이 둘에게서 ‘글쓰기(從文)를 일생의 일’로 결의하고 있음을 보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진귀한 결의라고 쓰고 있다.²⁵⁾ 吳郎이 전해주는 작가들의 결의는 한껏 진지함과 비장함을 잘 보여준다.

吳郎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또는 최재서가 대회에서 가졌던 감상에서 알 수 있듯, 대동아의 문학자의 제휴와 문학자이기에 갖는 이심전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문학자의 존재와 문학의 존재방식은 각 민족마다 서로 다른 장(場)을 갖는다. 특히 식민지의 역사가 다른 조선의 경우, 자기에 대한 고민이 만주국보다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자 자신의 고민으로 상대방과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서로 다른 맥락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이들의 만남은 일본 제국주의의 자장 위에서만 가능했던 바였다. 그러하므로 식민지문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동아문학’의 구상으로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주국 대표들과 조선인 대표들의 만남 혹은 만주국과 조선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범주로 묶이지 않으면 서로의 시선에 잡히지 않는 존재였다. 만주국과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가 일의적인 것이고, 일본의 매개를 거치지 않으면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로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대동아문학자대회는 결코 자신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만주국과 조

25) 吳郎, <東行隨抄兩則>, 《藝文志》(3호, 1944/1월), 46-47쪽.

선, '만주문학'과 조선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음을 알 수 있다.

5. 나가기

본고는 1938년에 본격적으로 일었던 재만 중국인과 일본인과의 교류가 가능했던 배경과 그 계기가 된 좌담회에 주목했다. 林房雄과 小林秀雄의 만주국 방문과 좌담회를 통해서 '만주문학' 담론이 정리되는 양상을 탐색하던 중, 이들의 조선 방문이 야기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있었음을 발견했다. 즉 이들의 방문은 일원화된 문인단체의 수립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는 이념에로의 통일을 추구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정부 주도의 문예보국의 일환으로 집중되었다.

특히 1938년 大連에서 있었던 일본인들 간의 좌담회가 이후의 '만주문학' 담론을 규정짓고 만주국의 작가들의 활동에 큰 가이드라인을 그려줬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주국의 건국이념인 협화를 향한 문학계의 첫걸음으로 만일 교류가 큰 소리로 주창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으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수동적으로 말려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 뒤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일원화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전쟁터를 시찰하거나 생산보국, 증산보국을 독려하고, 현지를 시찰하고, 그 성과를 문학을 통해서 형상화하여 사상전에 나서야 했다. 단지 2,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조직이 정비되고 규율이 설 수 있었던 까닭은 만주국 문학계의 역사가 깊지 않아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38년에 있었던 좌담회는 다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는데,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시선에는 재만 일본인 문학(만주국 내의 다른 민족들의 문학)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의 시선에 조선의 문학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시선에 조선 문학이 들어온 것은 ‘대동아’ 혹은 ‘대동아 문학’을 경유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조선인 작가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였는데, 이른바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과 조선은 항상 한 평면에서 만날 수 없었고, 일본이라는 제국의 매개를 거쳐서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동상이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동아문학에 대한 인정, 그리고 대동아문학에서의 일본사상과 정신의 우위성을 두 나라는 인정하지만, 그 한편으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 藝文志事務會, 《藝文志》, 新京: 月刊滿洲社, No.1(1939,6)-no.3(1940,6)
- 王光烈, 《新滿洲》, 新京: 滿洲圖書株式會社, 康德6年1月(1939)-康德12年1月(1945)
- 滿洲日日新聞社, 《滿洲日日新聞》,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1935-1943
- 文選刊行會, 《文選》, 奉天: 文溯書局, 1939
- 盛京時報影印組 輯, 《盛京時報》, 瀋陽: 盛京時報, 1985
- 趙孟原 主編, 《藝文志》, 新京: 藝文書房, 1卷1期(1943)-1卷12期(1944). 中國: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中心, 1993.
- 新青年旬刊社, 《新青年》, 奉天: 玉興印書館, 1권1기(1935)-9권4기(1940) 통권100호. 中國: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中心, 1993.
- 大村益夫, 布袋敏博 編, 《舊滿洲文學關係資料集(1)——《滿洲日日新聞》《京城日報》》, 東京: 早稻田大學語學教育研究所, 大村研究室, 2000
- 《滿洲文藝年鑑》, 東京: 葦書房, 1993
- 崔載瑞 주원, 《國民文學》, 人文社, 1941-1945,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7.
- 錢理群 主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2000.
-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東京: 綠蔭書房, 1995.
- 尾崎秀樹 著, 《舊植民地文學の研究》, 東京: 勁草書房, 1971.
- 岡田英樹 著, 《文學にみる‘滿洲國’の位相》, 東京: 研文出版, 2000.
-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滿洲國文化細目》, 東京: 不二出版, 2005.
- 《滿洲浪漫》(1-7), 影印本, 東京: ゆまに書房, 2003.

- 呂元明, 鈴木貞美, 劉建輝 著, 《『滿洲浪漫』研究》, 東京: ゆまに書房, 2003.
- 만주학회 編, 《만주연구(1-4)》, 서울: 만주학회, 2003.
- 김경일 等 著,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서울: 역사비평사, 2004.
- 김윤식 著,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한석정 著,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장선 著, 《위만주국시기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연구》, 서울: 역락, 2004.
- 김재용 著,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서울: 역락, 2004.
- 小林英夫. 著, 임성모 譯,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서울: 산처럼, 2004.
- 프라센지트 두아라 著, 문명기·손승희 譯,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서울: 삼인, 2004.

< 中文摘要 >

本論文中,筆者對於滿洲國時期產生出來的所謂滿洲(國)文學話語進行了分析。特別是1938年,日本的有名文學家林房雄與小林秀雄等訪問了'滿韓'地區,并且他們跟在滿日本人作家進行了座談會。在座談會席上,他們強調的說把滿洲文學應該被接受日本文學的指導。這就說滿洲文學是日本植民地文學的一種。這次訪問了滿洲國的林房雄等是日本最有名的文學家,所以他們的發言也有很大的影響力與權威。還有當時正在戰爭要緊,戰場將全國性,全面性地發展了。這時,在滿日本作家們接到日本大作家們的訪問,視察和指正,從滿洲文學的視角來進行了一面跟在滿中國人作家交流,一面向日本讀者介紹在滿中國人作家的文學創造。這樣包括在滿中國人作家在內滿洲文學話語才被產生,發展了。1941年爆發了太平洋戰爭。這時滿洲文學話語發展了'大東亞文學話語。這詞語就是在滿洲國的建國理念上樹立的口號。在滿中國人作家的立場上說,不能反對這個口號。根據嚴格生存狀態上,他們的反映是逼不得已的。隨着時局的進展,他們發言了積極響應太平洋戰爭時出現的增產報國、'英美擊滅口號,并且被動員了增產和視察活動。本論文繞着1938-1942年討論過的滿洲文學'與'大東亞文學話語,探討了在滿日本作家們與中國人作家之間有甚麼樣的交流,這個交流的意義是甚麼。

關鍵詞: 滿洲國、大東亞文學、民族協和、座談會、太平洋戰爭、中日戰爭、翻譯、大東亞文學者大會、滿洲文學、交流、文學選集、北邊鎮護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6.30	2011.7.24	2011.8.14	2011.8.20	2011.8.31